

주요 내용

1. [교회와 사회의 피드백 문화]

목회 피드백 받는 목회자일수록 교인 수 증가 더 높게 전망!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챗GPT에 대한 성도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 피드백 받는 목회자일수록 교인 수 증가 더 높게 전망!

피드백이란 무엇인가? 기술적으로는 정보를 되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업종에서는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조직에서는 직원에게 행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목표 달성과 성장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초 잡코리아에서 MZ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 상사’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상적인 상사’ 1위로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42%)’가 꼽힌 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트렌드모니터의 ‘직장 내 근무 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조사’ 결과를 봐도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상사 유형으로 ‘인간적인 측면’보다 ‘피드백을 잘하는 유형’이 꼽혔다.

직제와 조직을 갖추어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피드백은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의 피드백 문화를 묻는 질문에 출석교인 10명 3명만이 ‘우리 교회는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31%)’, ‘교회사역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29%)’라고 응답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설교 피드백을 받는 담임목사는 24%에 불과했지만, 목회 피드백을 받는 목회자일수록 향후 교회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번 <넘버즈 215호>에서는 직장/교회에서의 피드백 문화와 수용 인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 목회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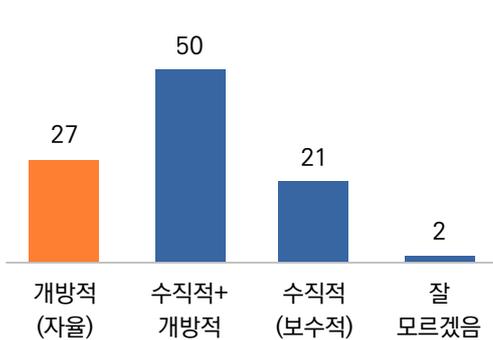
01

[직장 내 피드백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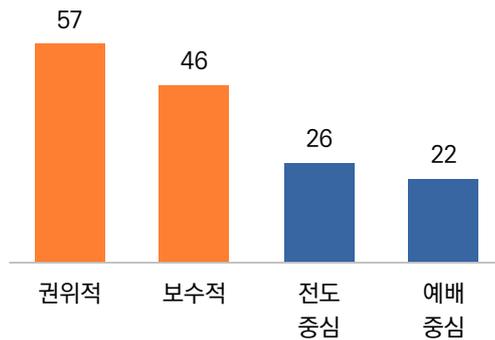
한국 직장 문화 '개방적', 한국교회 문화 '권위적/보수적'!

- ▶ 한국의 직장과 한국교회의 분위기/이미지에 대해 평가한 것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직장인들의 현재 직장 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개방적' 인식이 27%로 '수직적'(21%)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교회 출석 개신교인들이 느끼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권위적'(57%), '보수적'(46%)이 절반 안팎으로 응답해 일반 직장보다 한국교회가 훨씬 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직장 내 분위기 인식* (직장인, %)



[그림]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3개 복수응답, 상위 4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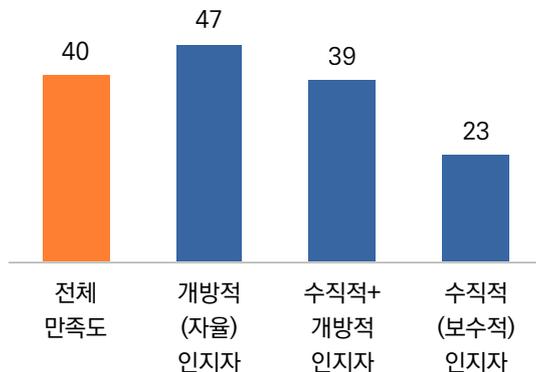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경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2022.09.17.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8.18.~08.24.)

***총 21개 단어 제시: 공동체적, 희생적, 해위선교지향적, 성경공부중심, 기도중심, 진보적, 전도중심, 개인경건중심, 사회정의, 사회구제 봉사, 친교적(코이노니아), 이성적, 예배 중심, 권위적, 민주적, 교회연대 지향, 합리적, 포용적, 보수적, 감성적, 도덕적

◎ 직장이 개방적일수록 직장 만족도 더 높아

- ▶ 그렇다면 직장 분위기는 직장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였는데, 만족도는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만족한다' 응답률은 직장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인식한 경우 47%, '수직적+개방적' 39%, '수직적' 23%로 개방적인 집단일수록 직장 만족도는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직장 분위기별 직장 만족도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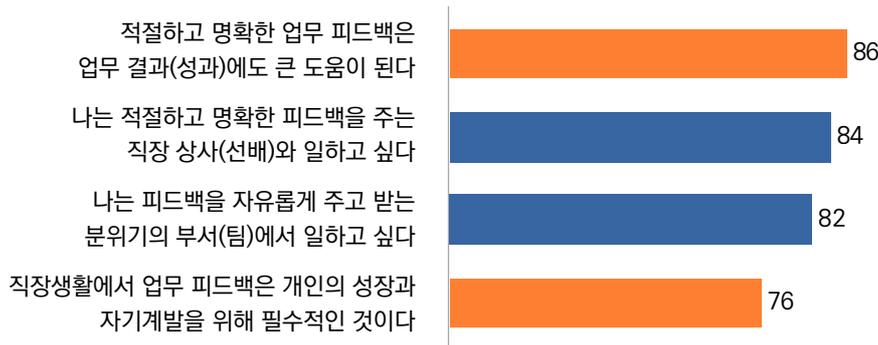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5점 척도로 '매우+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 비율

◎ 직장인 4명 중 3명, ‘피드백은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필수적!’

- ▶ 직장인의 업무 피드백 관련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율을 물어본 결과, 직장인의 대부분이 ‘적절하고 명확한 업무 피드백은 업무 결과(성과)에도 큰 도움이 된다’(86%), ‘피드백을 주는 직장 상사와 일하고 싶다’(84%), ‘피드백이 자유로운 부서(팀)에서 일하고 싶다’(82%)고 응답했다. 피드백은 ‘업무 성과’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직장인도 4명 중 3명(76%)에 달해 피드백 문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 ▶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서도 피드백 문화가 정착되면 교회 조직 문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직장에서의 피드백 문화 필요성 인식 (직장인,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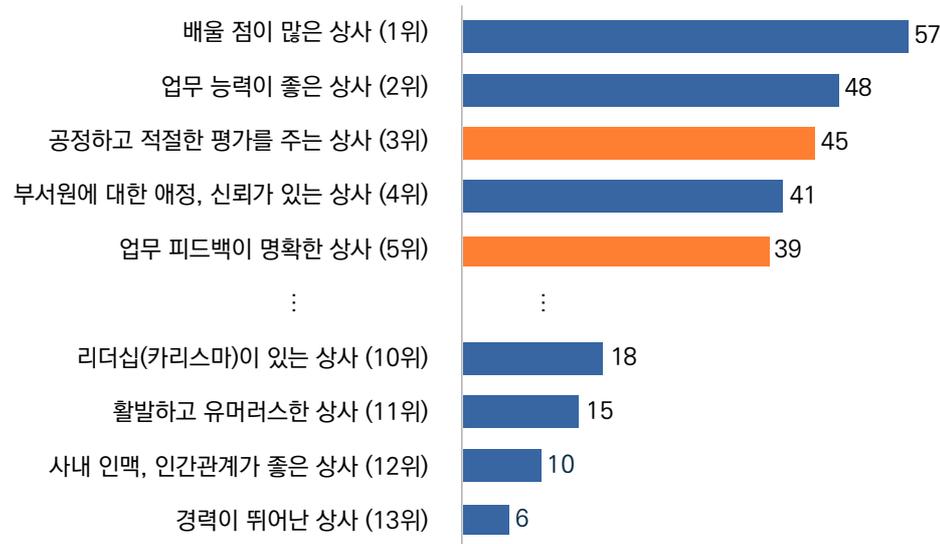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 인간적 측면보다는 피드백 잘하는 상사 더 선호

- ▶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사의 유형에 대해 묻은 결과, ‘(업무 능력, 가치관 등) 배울 점이 많은 상사’가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업무 능력이 좋은 상사’ 48%,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주는 상사’ 45%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반면, ‘사내 인맥, 인간관계가 좋은 상사’, ‘경력이 뛰어난 상사’는 10% 내의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면보다는 업무 능력이 좋고,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선호하는 상사 유형 (직장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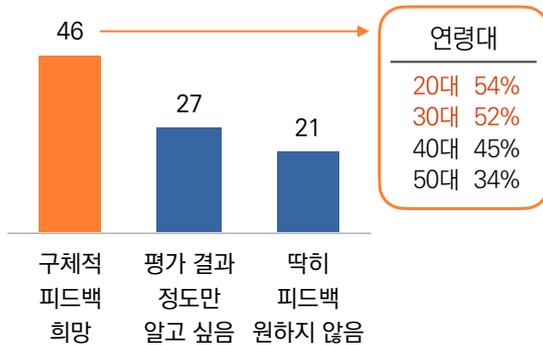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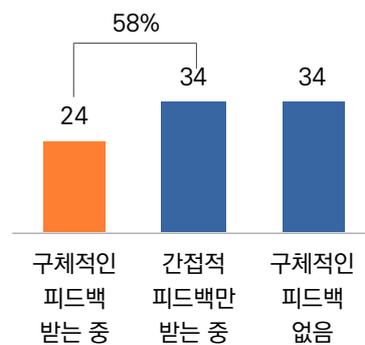
◎ 직장에서 실제 평가 피드백 받고 있는 비율, 기대하는 수준의 절반!

- ▶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근무 평가'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드백을 원할까? '구체적인 피드백을 희망하는 경우'는 절반 가까이(46%)에 달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구체적 평가 피드백에 대한 희망률이 높았다.
- ▶ 실제 근무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지를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평가 피드백 희망률(4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림] 자신에 대한 평가 피드백 희망 여부 (직장인, %)



[그림] 실제 평가 피드백 받고 있는지 여부 (직장인,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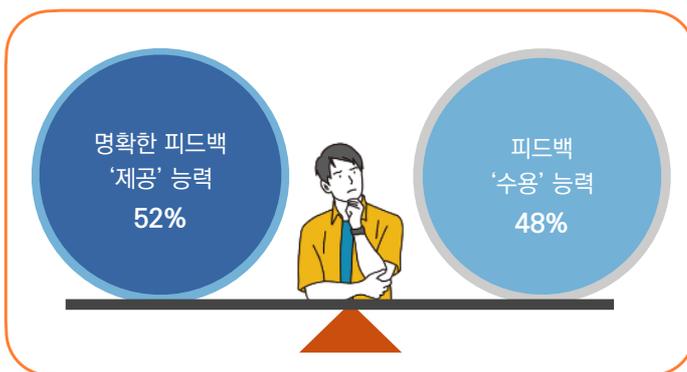
02

[직장 내 피드백 수용 인식]

피드백,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태도'도 중요!

- ▶ 회사 및 부서에서 자유로운 피드백을 주고 받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명확한 피드백 제공'과 '받은 피드백의 적절한 수용' 능력 측면(두 비중 총합이 100%)에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명확한 피드백 제공 능력' 52%, '피드백 수용 능력' 48%로 비슷하게 나타나 피드백을 받는 태도도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피드백 수용의 중요성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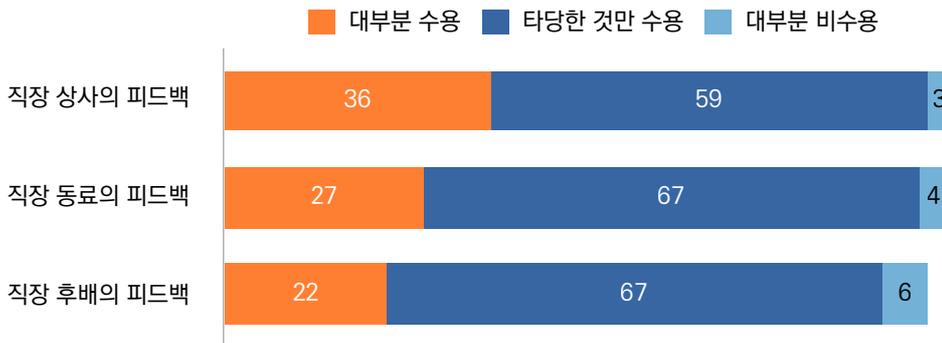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 직장 상사의 피드백, ‘대부분 수용’보다는 ‘타당한 것만 수용’!

- ▶ 회사에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직장 후배로부터 업무 관련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각각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묻은 결과, ‘대부분 수용’의 경우 ‘직장 후배’는 22%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직장 상사’가 주는 업무 피드백 비율(36%)이 높은 편이었다.
- ▶ 그렇지만 직장상사의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대부분 수용하기보다 타당한 것만 수용하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피드백 제공자별 업무 피드백 수용도**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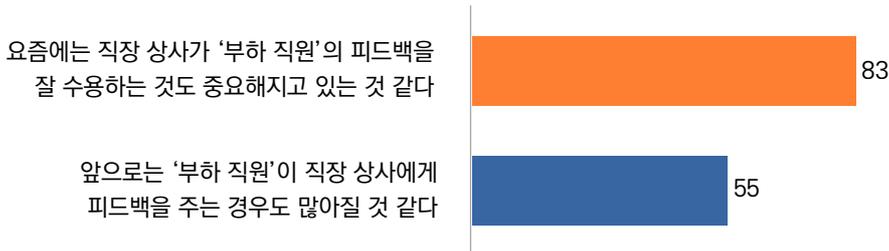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잘 모르겠다'는 제외

◎ 우리 사회, 앞으로 상향 피드백 많아질 것!

- ▶ 전통적인 피드백의 방향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탑다운 방식(Top down)이라면 상향 피드백이란 바텀업(Bottom up), 말 그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피드백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피드백에 대한 몇 가지 견해에 대한 동의율을 묻은 결과, '요즘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83%)에 대부분이 동의했고, '앞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상향 피드백)도 많아질 것 같다'에 대한 동의율도 절반 이상(55%)으로 나타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들도 평신도들의 피드백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직장 내 상향 피드백 인식 (직장인, 동의율,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 2023.10.20.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6.30.~07.04.)

03

[교회 내 피드백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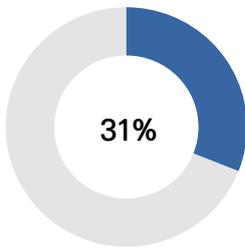
‘우리교회 정기적 사역 피드백 있다’에, ‘매우 그렇다’ 29%!

- 출석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문화와 피드백 관련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교회 내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31%)와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9%)에 출석 교인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상당 수의 성도들은 아직 교회의 수평적 문화 형성과 사역 피드백 측면을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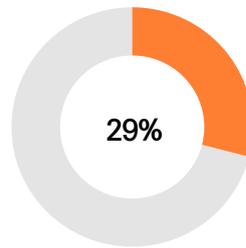
[그림] 교회 내 수평적 문화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매우 그렇다’ 비율**)

[그림] 교회 사역 평가(피드백)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매우 그렇다’ 비율**)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 2023.06.10.(전국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5.12.~05.31.)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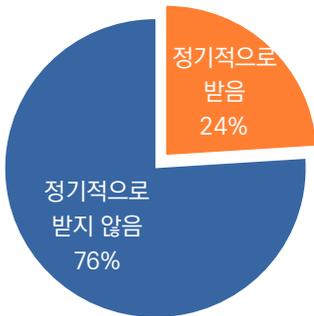
04

[목회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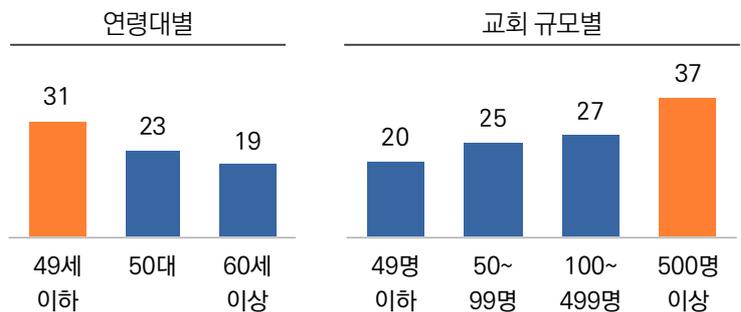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이 ‘정기적 설교 피드백’ 받아

- 이번에는 목회 환경에서의 피드백 실태를 살펴봤다. 설교 피드백(평가)을 정기적으로 받는 목회자의 비율은 담임목사 기준 24%만 ‘정기적으로 설교 평가 받는다’라고 응답했다.
- 정기적으로 설교 평가 받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설교 평가 여부 (담임목사)



[그림] 목회자 특성별 정기적 설교 평가 받는 비율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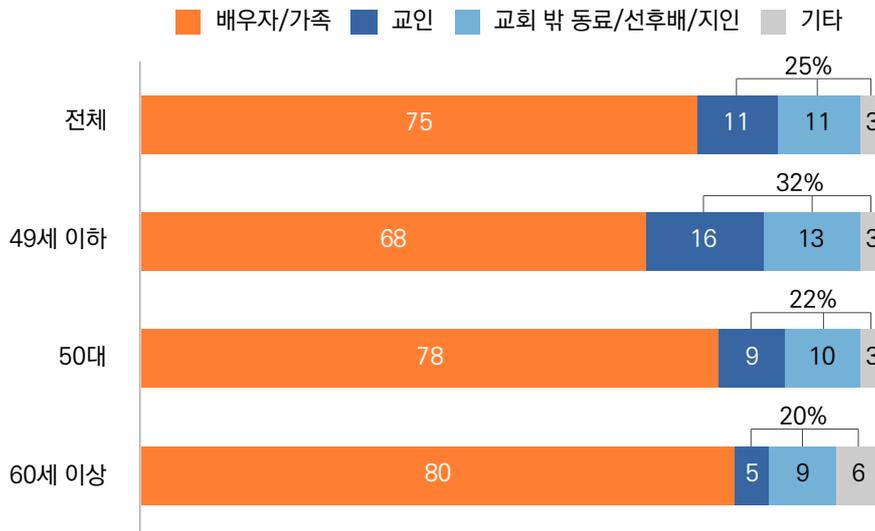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 목회자 연령 낮을수록 가족 이외 설교 피드백 비율 높아

- ▶ 정기적으로 설교 평가를 받는 목회자에게 설교 피드백을 누구에게 받는지 묻은 결과, '배우자/가족'이 75%로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으로 '교인' 11%, '교회 밖 동료/선후배/지인' 11% 순이었다.
- ▶ 연령대가 높을수록 설교 피드백 받는 비중이 가족에게 더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9세 이하' 목회자의 경우 가족 이외로부터 설교 피드백 받는 비중이 '60세 이상' 목회자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설교 피드백 받는 대상 (정기적 설교 평가 받는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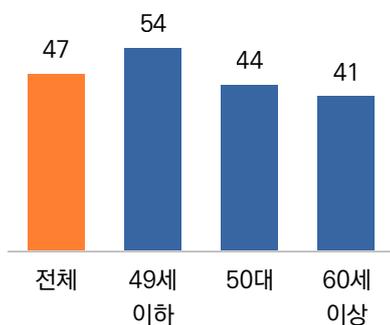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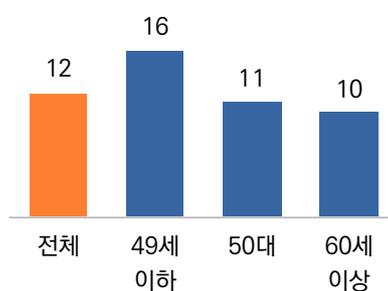
◎ 목회자문해 주는 평신도 '있다' 12%

- ▶ 목회 피드백에 관련한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 또는 여부를 물었다. '목회 코칭을 받은 적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의 목회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 자문을 해주는 평신도가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12%로 9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 ▶ 목회 코칭 경험이나 자문 평신도 여부 모두 목회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젊은 목회자일수록 목회에 대한 피드백이 좀 더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목회 코칭 받은 경험률 (담임목사, %)



[그림] 목회자문해 주는 평신도 전문가 여부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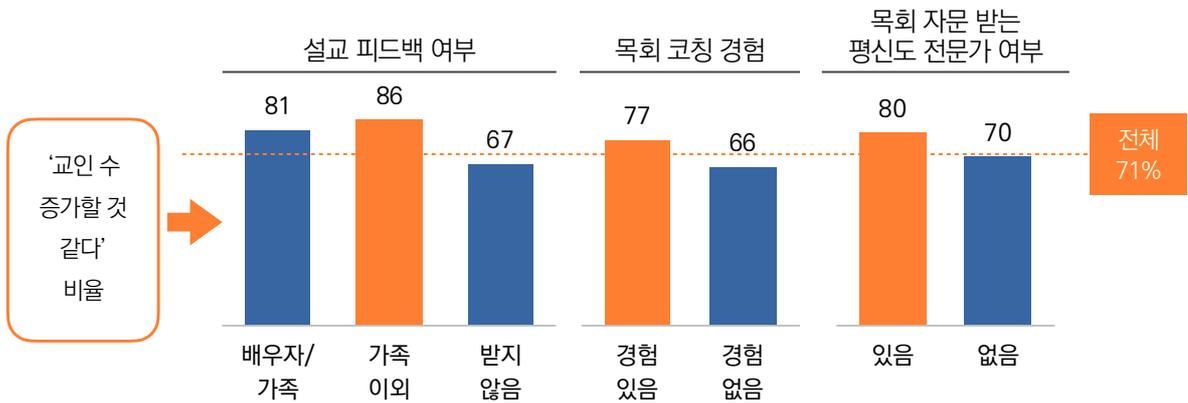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 목회 피드백 받는 목회자일수록 교인 수 증가 더 높게 전망!

- ▶ 목회 피드백을 받고 있는 교회는 실제로 성장하고 있을까? 목회자들에게 향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해 물은 결과,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71%였는데 목회 피드백을 받는지 아닌지 여부별로 비교해봤다. 정기적으로 설교 피드백을 받거나, 목회 코칭 경험이 있거나, 목회 자문 받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다는 목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목회자보다 10%p 이상 교인 수 증가를 더 높게 전망했다. 목회 피드백과 교회 성장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림] 목회 피드백 여부 별 '전년 대비 출석 교인 수 증가할 것 같다' 비율 (담임목사,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교본서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시사점

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흔히 Plan-Do-See라고 한다. 즉 계획을 세우고(Plan), 집행(Do)하며, 평가(See)한다는 의미이다. See 단계에서 평가된 내용은 다시 Plan 단계에 적용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한다. 조직에서 성과를 향상하는 방법은 '지시', '명령', '충고', '칭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드백이 이와 다른 것은 수용 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해 개인의 성장까지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넘버즈가 참조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직장 내 피드백 관련 조사'를 보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 대부분은 '적절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상사와 일하고 싶다'에 동의(84%)했으며, 인간성이 좋은 상사보다 오히려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피드백의 방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피드백 수용 능력'의 중요성(48%)도 '제공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향 피드백,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피드백의 효과를 얻기 위해 내용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수용하는 분위기와 태도까지 중요해지고 있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직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어떤 피드백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출석 교인에게 교회의 피드백 문화에 관련한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교회 내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피드백)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 29%에 불과해 피드백에 자유롭지 못한 교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목회에 있어서는 담임목사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24%, 이 중에서도 가족 이외로부터 받는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이렇게 직장내 교회의 피드백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피드백은 제공자와 수용자의 상호 이해와 교감,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한데,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일반 직장의 분위기는 '개방적인 면'이 '보수적인 면'보다 높은데 반해, 개신교인이 꼽은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권위적/보수적'이 가장 많았다. 직장보다 교회가 훨씬 더 '피드백'을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려면 열린 자세로 피드백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상호 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인 피드백은 쉽게 도입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정기 전도 행사에서 '새신자의 교회 정착률', 교회학교에서 '학령 단위 전환 이탈률'(가령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 등 현재 수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설교 피드백같이 정성적인 평가인 경우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한 목회 선배나 전문가 수준의 평신도에게 피드백을 받는 등 본인만의 피드백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드백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계획과 실행의 주체에게 피드백이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거나 심지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피드백이 순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드백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함'이라는 전제가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의 원인과 대상을 '사람'이 아닌 '행위'에 맞춰 불편한 감정 소모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결과 개선을 위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피드백해야 한다. 두려움과 불편이 우려되어 건강한 피드백 문화를 거부한다면 한국 교회의 성장은 그만큼 더디어질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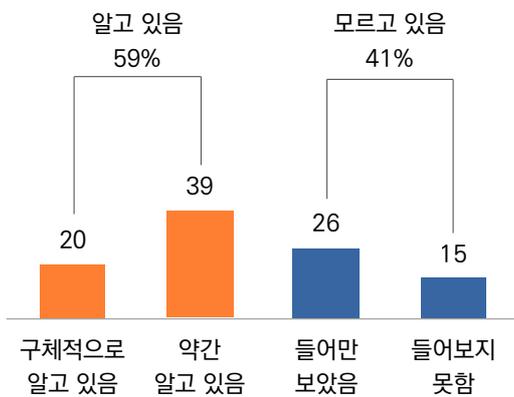
1.[챗GPT에 대한 성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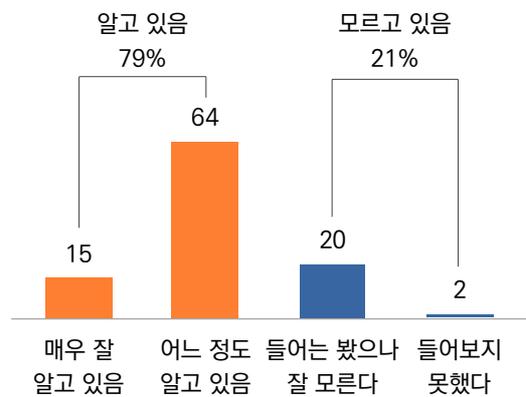
성도 10명 중 6명, '챗GPT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넘버즈186호>에서는 목회자의 챗GPT 인식에 다뤘는데, 이번에는 교회 출석 개신교인(성도)의 챗GPT 인식을 살펴보았다. 챗GPT를 알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 59%가 챗GPT를 '알고 있다(구체적+약간)'고 응답해, 10명 중 6명은 챗GPT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목회자의 경우 챗GPT에 대해 '구체적(매우)'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5%, 성도는 20%로 '구체적' 챗GPT 인지율은 목회자보다 성도가 더 높은 편이었고, 챗GPT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율은 성도 대비 목회자가 1.6배가량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챗GPT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



[그림] 챗GPT 인식**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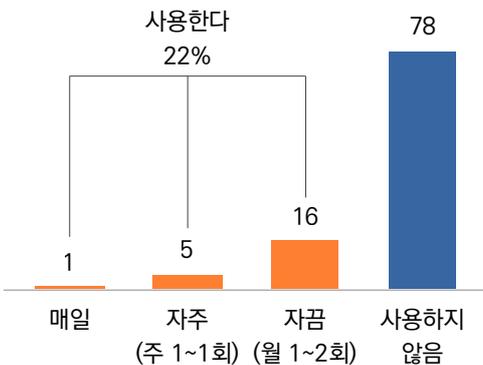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자료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챗GPT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2023.04.04.(전국 개신교 담임목사/부목사 650명, 모바일 조사, 2023.03.24.-03.25.)
 ***4점 척도 (출석 개신교인: 구체적+약간 알고 있음, 들어만 봄+들어보지 못함/목회자: 매우+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들어보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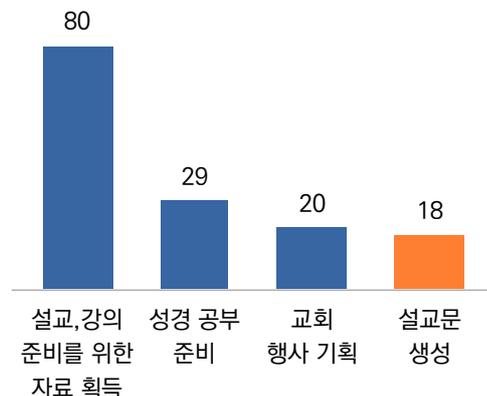
◎ 담임목사 5명 중 1명 이상, 교회 사역 위해 챗GPT 사용하고 있어!

- ▶ 목회자는 실제 챗GPT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 사역을 위해 챗GPT를 월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챗GPT의 사용 용도로는 설교와 강의를 위한 자료 획득이 80%로 가장 높았고, 설교문 생성도 18% 정도 나타났다. 챗GPT의 사용 빈도는 낮은 편이나, 사용하는 목회자 대부분은 설교 관련 이용 비율이 높았다.

[그림] 교회 사역 위한 챗GPT 사용 빈도 (담임목사, %)



[그림] 목회 관련 챗GPT 사용 용도 (챗GPT 사용하는 담임목사, 중복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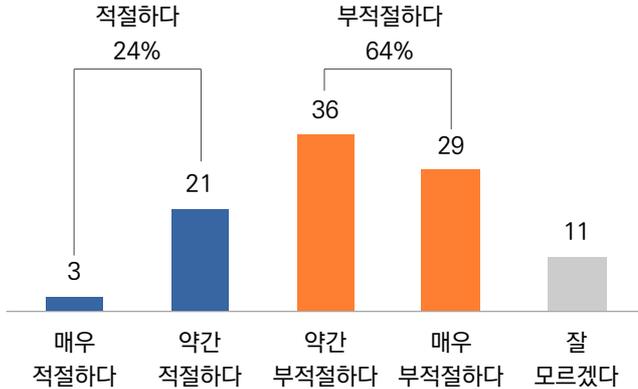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9.(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2023.05.12.-05.31.)

◎ 챗GPT 활용한 목회자의 설교문 작성, 성도는 ‘부적절하다’ 의견 높아

- ▶ 챗GPT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문 작성 시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부적절하다’ 64% ‘적절하다’ 24%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았다.
- ▶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29%로 나타나 성도 10명 중 3명은 목회자가 설교문에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설교문 작성 시 챗GPT 사용에 대한 의견** (교회 출석 개신교인 중 챗GPT 인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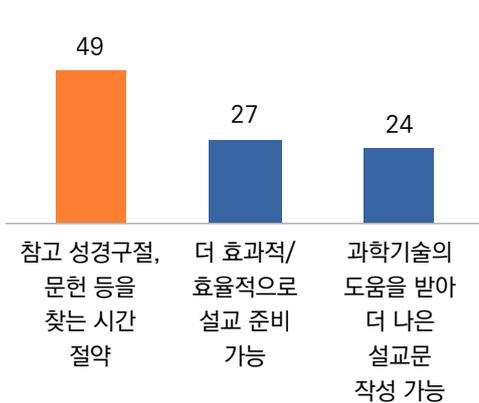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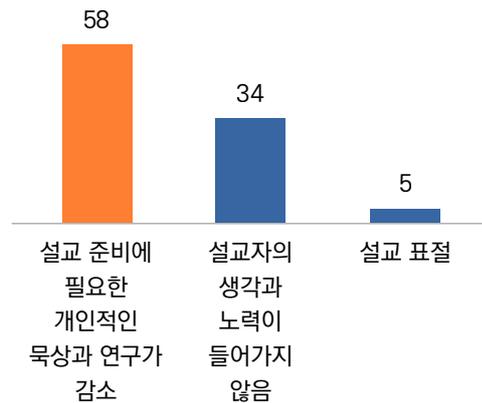
◎ 챗GPT 설교 활용 반대 이유? 설교자의 묵상과 연구 노력 떨어짐

- ▶ 챗GPT를 설교문 작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각각 물었다. 적절한 이유로는 ‘참고 성경구절, 문헌 등을 찾는 시간의 절약’(49%)을 가장 높게 꼽았고, 반면 ‘부적절한 이유’로는 ‘설교 준비에 필요한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 감소’(58%)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크게 보면 ‘시간 절약/편의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목회자 영성과 연구를 중시’하는 입장 간 견해 차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챗GPT 설교문 작성 사용 적절 이유 (교회 출석 개신교인, 챗GPT 설교 사용 적절 응답자, %)



[그림] 챗GPT 설교문 작성 사용 부적절 이유 (교회 출석 개신교인, 챗GPT 설교 사용 부적절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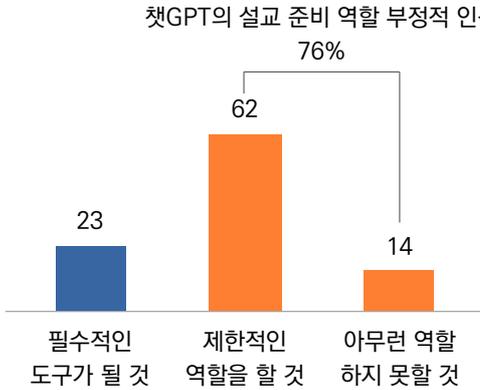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기타 제외

◎ 설교에 대한 챗GPT의 역할, '부정적' 76%!

- ▶ 설교 준비에서 앞으로 챗GPT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성도들에게 챗GPT의 향후 역할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은 결과,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 23%,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 62%로 가장 높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14%로 챗GPT를 인지하는 성도들 중 76%는 '제한적 역할을 하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림] 설교 준비에서 챗GPT의 역할 예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중 챗GPT 인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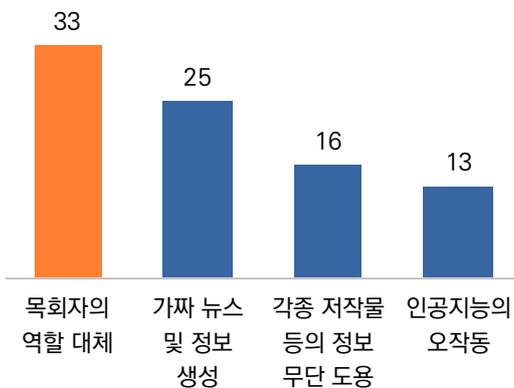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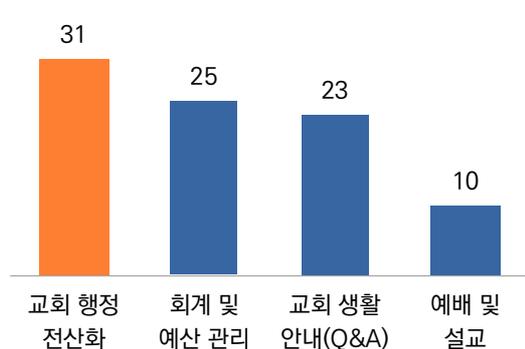
◎ 교회에서 챗GPT 사용 시 가장 큰 문제점, '목회자 역할 대체'!

- ▶ 챗GPT를 교회에서 활용 시,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의 역할 대체'(33%)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했고, 그다음으로 '가짜 뉴스 및 정보 생성' 25%, '각종 저작물 등의 정보 무단 도용' 16% 등의 순이었다.
- ▶ 한편 교회 내에서 챗GPT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교회 행정 전산화'와 '회계 및 예산 관리'가 각각 1, 2위로 응답됐다. 예배/설교, 기도 등 목회 본질적 부분보다는 행정/회계/예산 등 지원적 측면에서 챗GPT가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교회의 챗GPT 사용 문제점 (교회 출석 개신교인 중 챗GPT 인지자, 상위 4위, %)



[그림] 교회 내 챗GPT 적극 활용 분야 (교회 출석 개신교인 중 챗GPT 인지자, 상위 4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6.1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31.)

**기타 제외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4호 \(2023년 11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9호 \(2023년 11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방향성 평가, 정책 추진을 잘 할 것 같은 정당, 서울확장론 추진 인식 등

[국민 55%가 '김포시 서울 편입, 안 좋게 본다'고 응답, 한국갤럽 조사](#)

시사IN_2023.11.10.

['대통령감은' 민주층 50% "이재명" 국힘층 31% "한동훈"...서울선 韓 18% 李 17%](#)

디지털타임스_2023.11.10.

◎ 사회 일반

[수능, 공정한 시험인가? 앞으로의 수능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수능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11.0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11.07.

["이혼한 중년 남성, 1인 가구 중 행복감 가장 낮아"](#)

여성신문_2023.08.09.

[60세 이상 76% "생활비 직접 벌어"... "자녀-친척 도움 의존" 12% 그쳐](#)

동아일보_2023.11.09.

[탈북민 3만4천명인데 여전히 낯선 이웃?...국민 78% "만난적 없어"](#)

연합뉴스_2023.11.08.

[국민 92% "자살 보도 때 고인·유가족 인격 침해 말아야"](#)

연합뉴스_2023.10.31.

["국민 4명 중 1명, 사회갈등 원인 '빈부격차'로 꼽아"](#)

연합뉴스_2023.11.09.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3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가해자 대다수 남성·서비스 이용자](#)

여성신문_2023.11.06.

[챗GPT 1년... "AI 강사와 회화 공부" 급증, 학원가는 일자리 걱정](#)

동아일보_2023.11.11.

[제사 준비는 여성 몫? "가족 모두 함께, 음식은 형편에 따라"\(종합\)](#)

연합뉴스_2023.11.02.

◎ 청년 / 청소년 / 아동

["장애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니트족'...맞춤형 지원 필요"](#)

연합뉴스_2023.11.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청소년 2명 중 1명 “전두환 손자 5·18사죄 긍정적”…부정적 11%](#)

동아일보_2023.11.13.

[응급실 온 ‘손상’ 환자 중 1020 급증… sns 인증샷 대책 필요](#)

국민일보_2023.11.09.

◎ **경제 / 기업**

[직장인이 매긴 조직문화 점수 60.7점…작년보다 8점 하락](#)

연합뉴스_2023.11.12.

[2023 자테크 및 인생\(성공\)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3.11.08.

◎ **국제**

[바이든 계속 밀린다…가상대결서 트럼프 49% 바이든 45%](#)

중앙일보_2023.11.09.

[“부장님 힘드시죠” 번아웃에 시달리는 관리자들](#)

조선일보_2023.11.12.

["Z세대, 역대 가장 외로운 직장인"…'치명적' 경고 나온 이유](#)

중앙일보_2023.11.12.

[“사무실 복귀 저항 막아라” 카페·산책로 갖추고 반려동물 돌봄비도 준다](#)

조선일보_2023.11.09.

◎ **건강**

[2030 당뇨병환자 급증…심각성 알지만 혈당수치는 몰라](#)

동아일보_2023.11.08.

["성인 55% 당뇨 관리 필요…3명 중 1명 환자인 줄 몰라"](#)

연합뉴스_2023.11.13.

['혹시 나도 ADHD?'…자가 진단·정신과 방문 2030 ↑](#)

연합뉴스_2023.11.09.

◎ **기독교 / 종교**

[“기독교 청소년 중 45% 부모와 신앙적 대화 거의 안 한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11.13.

[개신교인 청소년 3명 중 1명 “성인되면 교회 안 갈 듯”](#)

크리스찬타임스_2023.11.1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해외 선교사 66% “기후 변화 대응 교육한 적 없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11.08.](#)

[미국인 40%, 인류는 진화 아닌 하나님의 창조결과라고 믿는다](#)

[크리스찬타임스_2023.11.10.](#)

[미 목회자 절반 “올 인플레이션 경제, 교회 운영에 부정적 영향”](#)

[더미션\(국민일보\)_2023.11.09.](#)

◎ 기획기사 : 디지털 차별 받는 노인, (조선일보)

[1. 매일 무인 주문기계와 전쟁... 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 _2023.10.23.

[2. 일하고 싶어도... 노인 68%가 “구직 정보 못 찾겠다”](#) _2023.10.24.

[3. “노인 배려 없어... 디지털 전환, 속도 조절해야”](#) _2023.10.25.

[4. “인터넷 쇼핑, 자식에게 부탁하기 미안해”](#) _2023.10.26.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